

자기소개서

| | | | | | |
|-----|--------|-----|----|-----|-----|
| 소 속 | ○○초등학교 | 직 위 | ○○ | 성 명 | ○○○ |
|-----|--------|-----|----|-----|-----|

→ ○○독수리_꿈을 꾸다

어린 시절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던 길에는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수려한 ○산자락이 만들어낸 독수리 형상이었습니다. '저 독수리 머리에 올라앉아 서울로 훨훨 날아가고 싶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반복되는 농사일에 지쳐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농촌을 벗어나서 도시에서 성공하며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학창 시절을 보내고 ○○교대에 입학하여 교육자로서 꿈을 키웠습니다.

→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된다_다양한 경험으로 성장하다

○○교대 졸업 후 곧바로 군에 입대하여 6년간 근무한 뒤 교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타지에서 신규교사 시절을 보내고 2004년 ○○으로 돌아와 ○○초(2년), ○○초(6년)에서 근무했습니다. 대학시절 음악교육을 부전공으로 이수한 덕에 음악 관련 행사와 학생지도로 주로 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활동이라고 생각되면 몸을 사리지 않고 집중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음악지도를 바탕으로 각종 학교의 여러 행사를 대부분 주관하여 질을 높여갔고, 이런 노력들은 아이들의 성장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이끌어내며 보람을 선물했습니다. 그것이 교육자로서 내가 가진 재능을 발휘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최상의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_ 초등교사와 음악교사의 경계를 고민하다

교사로서 10년 정도 되었을 때 문득 초등교사로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나에 대한 주변의 평가는 '음악지도를 잘하는 교사'이거나 '각종 계획서와 보고서를 잘 쓰는 교사'였습니다. 이때마다 머리에 든 생각은 '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인데 사람들은 왜 나의 본질적인 모습보다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더 관심을 갖는가'였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또한 자신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교사로서 한계를 경험하다_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성장하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으로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는 없을까? 그래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초 학급담임으로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개별화교육을 시도했습니다. 아이들 수준에 맞게 각각 독서, 과제를 제시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을 통해 학력이 증진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아이들의 학력이 신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력신장 프로젝트'의 결과는 기쁨도 컸지만 나의 한계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습부진 상태의 아이들은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본적인 교육방식과 정책의 변화가 필요함을 절감했습니다.

▶ 화려한 조명, 환호 그리고 성숙_ 민주성, 함께하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깨닫다

○○초에서의 6년은 교사로서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린이합창단을 지도하여 전국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고, 어머니 합창단을 운영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교육과정 및 연구학교 업무를 담당하면서 많은 실적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각되는 그늘에는 학교운영 전반에 나서지 못하는 분들이 생겼고 이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는데 '왜 이런 비판을 듣게 되었을까'하는 성찰의 끝에 비민주적인 리더십이 작용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함께하는 리더십의 부재'였습니다. 일 잘하는 한두 명이 중심이 되어 학교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대다수 학교 구성원들을 허수아비처럼 만들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나의 업무추진 방식은 변했습니다. 불도저와 같이 추진하던 스타일에서 주변 동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하는 방향으로 변했고,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는 구성원이 다 같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실천했습니다.

▶ 함께하는 집단지성과 공동체의 힘을 경험하다_ 혁신학교 경험을 통해 성장하다

○○초에서의 3년은 교무업무를 담당하면서, 교사와 학부모 단체를 조직하고 구성원들의 집단지성을 통해 관리자의 학교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동체와 집단지성의 효율성을 내면화시키고 학교교육의 본질적 역할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사들과 함께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만드는 선구적 사례를 만들었고, 학부모와 함께 교육활동을 기획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내적으로 성장하고 학교 울타리 안에 머물러있던 시각을 지역으로 넓히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 지역교육의 꿈을 꾸다_지역인재 성장을 통한 지역교육의 발전을 꿈꾸다

○○초에서의 실천을 바탕으로 '○○ 지역의 교육을 디자인 해보자'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학교만 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보살피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꿈을 꾸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전문직에 도전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는 토대가 되었던 ○○지역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자 했으나 장학사로서의 첫 발령은 ○○교육지원청이었습니다. ○○지역에 근무하는 2년 동안 ○○지역 교육의 발전에 대한 고민을 단 한 순간도 멈추지 않았고 선·후배들과 함께 놓여준 교육특구를 고민하고 기획하는데 진력했습니다.

▶ Bottom-Up 방식의 정책을 수립하다 _ 민주적 정책 수립을 실천하다

○○교육지원청에서의 근무 경험은 민주적 학교문화의 소중함을 더욱 실감한 시간이었고, 교원들의 교육과정 전문성 신장의 중요성을 확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소 보수적인 지역으로 꼽히던 ○○지역 교육을 전복교육 혁신의 상징이 되는 지역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특히, '○○교육집강소'를 통한 상향식 정책 결정 과정의 도입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혁신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교사들의 책무성은 높아졌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인재 중심의 교육을 추진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교사들의 지역교육 전문성은 날로 신장되었고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 전라북도교육청의 위상을 높이다_ 정책연구를 통해 '학교자율시간'을 도입하다

○○지역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싶었으나 인사발령에 의해 도교육청에서 혁신정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정책의 전반을 분석하고 방향성을 탐색하는 과정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막중한 책무성이 동반되었습니다. 도내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전북교육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2018년 '전북미래교육' 정책연구를 시작으로 '참학력 기반 교육과정 연구' 등의 정책연구를 추진하여 전북교육이 추구하는 미래교육과 미래학교의 기초를 다지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연구를 통해 '학교교과목'이 만들어졌고, 교육부와 협조하여 2022개정교육과정에 '학교자율시간'이라는 정책이 도입되도록 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전북교육의 우수함과 실천력을 교육부에서 인정한 매우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 교감으로 섬세함을 더하다_ 교사들의 든든한 방패로서 관리자가 되다

6년간의 장학사를 마치고 전주○○초, 전주○○초, ○○초 교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장학사 시절 보고 느낀 리더십을 바탕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호흡하고 같은 눈높이를 가지려 노력했습니다. ○○초에서는 학교 민원을 전담하며 신설된 대규모 학교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극복하려 노력했습니다. 전주○○초에서는 교육부 연구학교의 소임을 위해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업무경감을 시작으로 학폭과 민원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초에서는 구도심의 어려운 아이들을 보살피는데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다양한 환경과 과제를 가진 학교에서의 근무는 교사, 장학사로서 가졌던 꿈을 보다 섬세하게 기획하고 구체화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학교교육은 모든 구성원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때 극대화될 수 있으며, 마음을 모으는 일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 함께하는 공동체를 꿈꿉니다_ 부안동초 교육공동체의 자부심을 고양하겠습니다

학교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필요와 교육적 열정을 모두 담아내기에 어려움이 많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의 기본으로 '함께하는 민주적 공동체'를 지향하겠습니다. 학교교육의 성패는 교사들의 교육력에 의해 크게 달라집니다. 교사의 교육과정 역량을 성장시키고, 학년별 공동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사들의 노력 못지않게 더불어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학교 교육 참여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실적 중심의 학부모 교육에서 벗어나 교사들과 함께 나의 아이를 넘어 우리의 아이들을 돌보고 성장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장학사 이후 마음속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던 다짐입니다. 학교를 운영하는 리더로서 모든 구성원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뜻하게 의견을 모으고, 단호하게 결정하고 책임지는 '선택과 집중의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독수리'는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상징이었습니다. 지금의 ○○독수리는 ○○지역과 구성원을 감싸고 보호하는 존재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너른 품으로 부안동초 교육공동체와 함께 울고 웃으며 성장하는 '○○독수리'가 되겠다는 꿈을 꿉니다.